

신행수기 당선작 (현대불교 사장상)

나를 일깨워 주신 부처님 ③ (글)

원만심 (본명 채희주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그 광경을 본 일행 중 지성심 보살님이 "지병을 내가 덮겠다"고 법사님하고 약속을 하게 되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법당 지병은 누더기 옷을 기워 입은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누더기 법당이라 불렀다. 그 후 지성심 보살님이 이제 상량식 할 날도 가까웠으니 '좋은 법당'이라고 부르자고 하여 우리 회원들끼리는 그렇게 불리고 있다.

'좋은 법당'으로 완공되어 상량식날 우리 회원들은 부처님 공양물과 병사들에게 대중 공양물을 준비하기로 약속하고 철인 문해리로 출발하였다. 상량식 시간이 오후 2시에서 12시되는 시점에서 준비해간 공양물로 점심은 먹기로 하였다.

버스 트렁크에서 점심 공양물을 꺼내는데 부처님께 올릴 떡이 보이지 않았다. 소임을 맡고 있던 나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었다. 보살님들 시선은 모두 나에게로 쏠렸다. 서울 아닌 이 허허벌판에서 어디가서 준비해야 하나. 서울 떡집을 원망할 수도 없고 항상 우리는 어디를 갈 때마다 준비물이 많은 편이었다. 한번의 실수도 없이 일했고 떡방앗간에서 항상 미리 떡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재점검을 하지 않았던 것이 나의 실수였다. 서울에다 전화를 걸었더니 내일인줄 알고 떡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아 택시를 타고 방앗간을 찾아 나서는 수밖에 없었다.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져서 택시도 좀처럼 오지 않아 앓을 태웠다. 5분

를 기다리니 택시가 왔다. 항상 힘든 일. 곳은 일을 옆에서 도와주는 이처사와 방앗간 찾기에 나섰다. 그러나 택시에 열주를 단 것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며 관세음보살님을 불렀다. "아저씨 제일 가까운 떡집으로 안내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군법당 상량식 준비를 도맡아 왔는데 떡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봉사의 기쁨·건강·지혜를 주신 부처님! 제 마음속에 많은 법당 세우도록 힘을..."

나는 재정이 아니었다. 시골에서 딱 다섯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며 택시 기사도 걱정했다. 이처사는 생 팔하고 쌀이라도 준비해 가지며 나를 위로했다. 10분을 헤매다 한 곳을 발견했다. 찾아가던 곳에선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면 본체만체했다. 다른 떡 방앗간을 찾아 우리는 뛰기 시작했다. 마침 방앗간을 찾았다. 떡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다행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양을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에 "한말이면 되지만 더 주문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는데 된다는 것이다. 오늘 결혼하는 집에서 떡 다섯말을 주문했는데 모르고 쌀 한 가마니를 더 담가줬다는 것이다. 쌀도 예비용 한말 정도를 아침에 삶아 놔다는 것이다. 나는 이처사 손을 잡고 부처님은 나를 온경

속에서 일어하게 해주셨다고 기뻐했다. 그때 그 감사와 기쁨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힘을 주셨다. 나는 지금도 그날을 꿈으로 남기고 싶다. 유년시절 교회에 나가던 막내아들에게도 어느 날 봉은사 수련회에 7도록 권유한 적이 있었다. 역사를 알고 불교도 확인해 보라고 해서다. 3학년 4월 해인사 수련회에 갔다오더니 교회친구들까지 부처님 품으로 인도했다.

보 살들만 불교를 알려주는 것보다 청소년들도 방화 동안에 수련회에 참석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법공양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에서, 군대에서 열심히 불교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흐뭇하다. 종교는 자유다. 하지만 내 가족이 한 종교를 믿는다면 얼마나 든든할 것인가.

탕화, 신종탕화... 또 기적적인 불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장탱화의 꿈을 꾸게 되었다. 부처님 점안식 하루 앞두고였다. 지장탱화도 같이 점안하지 못해 잠을 이룰 수 없어 마음속으로 기도하다가 정교에 있는 박미영보살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음이 편하지 못해 기도하다 전화를 했다고 하며 같이 기도하자고 물음직한 음성으로 울먹였다니 박미영 보살님도 같이 우는 것이었다. "보살님, 내일 차중에서나마 인연을 찾을까요?" 공양물을 준비하고 새벽 4시30분에 관양버스에 몸을 싣었다. 몸이 피곤한 줄도 모르고 지장탱화에 대한 이야기를 마이크를 잡고 하게 되었다. 원래 난 말솜씨가 없어 앞에 나서서 마이크 잡는 것을 주저하는 편이다. 그러나 그날은 자신있게 지장탱화 인연이 차중에서 맺어지리라는 생각을 했다. 어젯밤 꿈속에서 내 얼굴이 비치는 큰 연

못에 머리를 감으러 갔었다. 너무 물이 맑고 깨끗하여 그 맑은 물은 어디서도 다시 못 볼 것이라는 생각에서 도저히 그 곳에서는 물이 더러워질까 머리를 감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옆에 계곡물로 머리를 감는 꿈을 꾸었기에 용기를 내어 그 이야기를 했다. 오늘 지장탱화를 인연짓는 분은 참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나 자신도 모르게 울먹였다. 그 순간 신영자 보살님이 손을 들었고 연달아 불사가 이루어졌다. 기적이었다. 점안식 1시간 30분을 남겨놓고 회원들은 차 안에서 박수를 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칠곡유계사에서 서로 격언과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께서도 우리 심우회 회원들의 불심을 감동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3사관학교 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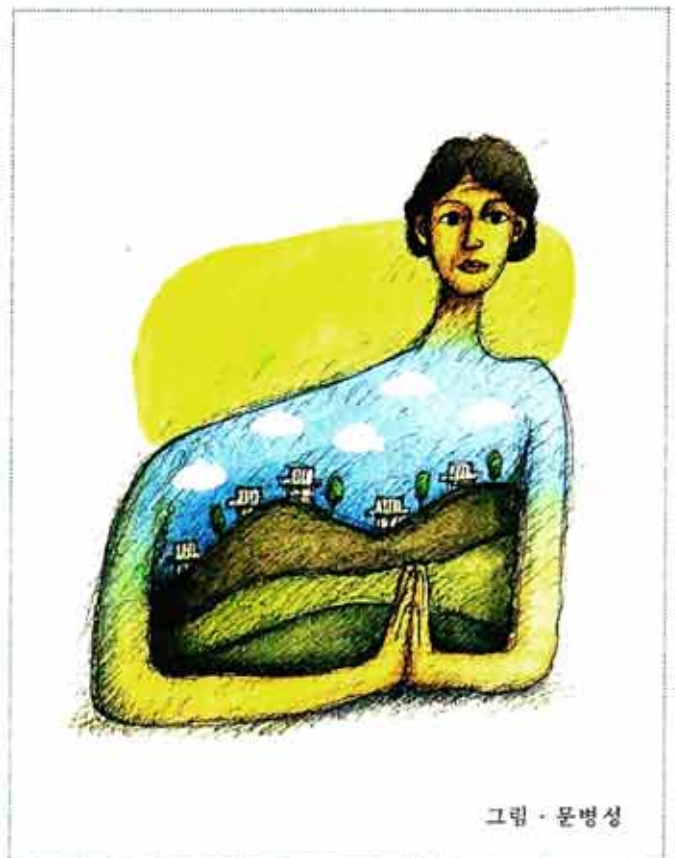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식에서도 우리 회원들은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우리 회원들은 더 열심히 봉사하여 부처님께 보답하고자 다짐한다. 부처님을 만난 후 달라진 내 모습을 돌아보며 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신 부처님께 항상 감사한다.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되어주신 심우회 보살님들. 이제는 작은 법당이라도 마련하여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부처님, 봉사를 하다보면 부처님의 기쁨을 확실히 느낀다. 이는 나의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또 관세음보살님 영물로 만난 인연도 많다. 한사람 한사람이 소중한 인연을 잊지 않고 좋은 공덕 짓고 착한 모습으로 일할 수 있는 지혜를 부처님께 발원한다. 봉사의 기쁨은 곧 나의 건강이며 내가 나아가길 때 불교라는 종교와 심우회를 만났기에 나는 상속해지고 늘 오투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부처님이시여, 내 마음속에 많은 법당을 짓게 힘을 주소서.

참선, 어떻게 할 것인가!

Advertisement for '참선요지' (Sutra for Meditation). Text includes: '초심자는 공부를 해도 향상되지 않고, 구할자는 중간에 머물러 게을러지게 되니 선 수행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인재나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을 알 수 있을 것인가?'. It features a book cover imag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이서이문' publisher.

Large advertisement for a Buddhist event titled '나라의 安寧과 苦痛받는 이들을 위한 釋迦世尊 眞身舍利 親見大法會 奉行委員會 奉行안내'. It lists a long list of names under '지도위원' (Guidance Committee) and '주최' (Organized by) sections. It also includes a photo of a woman in prayer and a list of sponsors at the bottom.